화순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10만원 더 받는다

구충곤 화순군수가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군, 9억8700만원 자체 편성…구충곤 군수 "자연재해·코로나 피해 추가 지원 필요"

화순군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자체 예산을 들여 전체 농·어가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지역 내 모든 농·어가에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9억87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화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다. 대상 가구는 9872가구로 예상된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으로 0.5ha 미만 영세 농민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모든 농어가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영세 농민(6300가구)은 정부 지원금 30만원에 더해 화순군 지원금 10만원을 받아 모두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 외 나머지 농가는 화순군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을 받는다. 재난지원금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화순군이 이처럼 전체 농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산량 감소, 소비 위축, 소득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 피해 규모와 비교해 정부의 직접지원 대책이 부족하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이 크게 작용했다.

구충곤 군수가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 증액'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 군수는 지난 2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지급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구 군수는 "저온 피해, 수해 등 자연재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산량이 줄고 소비·경제 위축으로 농어가의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 농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지급액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군수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과 자연 재난 등으로 농어가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화순군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지금의 고비를 넘어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군 역사박물관 건립 본격화

전남대박물관과 업무협약

담양군이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

28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읍 객사리 담빛예술창고 앞 주차장 부지에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신청했다.

담양군은 올 상반기 내에 사전평가를 통과하면 하반기에 착공해 2024년 개관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사전평가를 통과한 후 사업비, 설계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다.

담양군은 지난 25일 전남대학교 박물관과 담양 역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형식 담양군수와 정금희 전남대학교 박물관장이 참석했다.

담양군과 전남대학교 박물관은 담양군 출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담양군 역사박물관 건립·운영, 담양군 역사와 문화 홍보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역의 역사자료와 유물을 한곳에 모아 보존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 건립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남대학교 박물관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금희 전남대학교 박물관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남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담양의 역사문화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상생을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최형식(오른쪽) 담양군수와 정금희 전남대학교 박물관장은 지난 25일 담양군수실에서 담양역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양군 제공〉

장흥 천관농협, 농기계 출장 무상수리 호응

김외중 조합장 "서비스센터 신축"

장흥 천관농협이 영농철을 앞두고 순회 농기계 무상수리 봉사활동을 펼쳐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천관농협은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대덕읍·회진면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예취기 등 이동이 번거로운 중·소형 농기계 360대를 무상 수리했다. 또 농기계 보관관리 지도 활동도 병행했다.

천관농협은 지난 2001년 농기계 무상수리를 시작해 올해로 20년째 이어오고 있다.

김외중 천관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농업 경영비 절감과 영농자재 지원,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농산물 길러 먹어요"…장성군, 텃밭 무료 분양

오늘부터 선착순 152세대

장성군은 텃밭 경작 체험에 참여할 주민 152세대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장은 장성읍 영천아파트 인근에 총 2539㎡ 규모로 마련됐다. 1세대당 16.5㎡씩 텃밭을 가꿀 수 있다. 장성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9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현장에서 대상자 확정과 분양지 추첨을 진행한다.

올해 분양분 텃밭은 11월30일까지 가꿀 수 있다. 지난 2011년 운영을 시작한 장성군 텃밭 경작 체험에는 1445세대가 참여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텃밭 가꾸기 체험은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농업의 소중함을 되새길 기회"라며 "매년 조기에 마감된 만큼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강진 장미 'ON'

오늘부터 2차 온라인 판매
내달 11일까지 우체국쇼핑

강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업인을 돕기 위해 '강진 청자골 장미 2차 온라인 화훼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우체국쇼핑(www.epost.go.kr)에서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한다.

지난달 24일 온라인 화훼 기획전 개시 반나절 만에 3만5000송이가 조기 품절된 바 있다.

강진군은 국민에게 장미 직거래 구매를 통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화훼농가 안정적인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하고자 2차 판매를 추진했다.

장미 10송이(1단)를 택배비 포함해 1만 2900원에 판매한다. 수량은 5만송이(5000단) 한정으로 요일별 지정 주문을 통해 판매가 진행된다.

청자골 강진 장미는 단일규격으로 박스 포장 후 배송과정에서 흔들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꽃대와 박스 하단 부분을 고정한 상태로 배송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청년 고민상담 '가온 톡'

나주시청년센터 11월까지 운영

나주시가 불확실한 미래와 무한 경쟁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고민으로 갈등하는 청년들의 애로 해소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11월까지 나주시청년센터에서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청년심리상담 가온 톡(talk)'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서비스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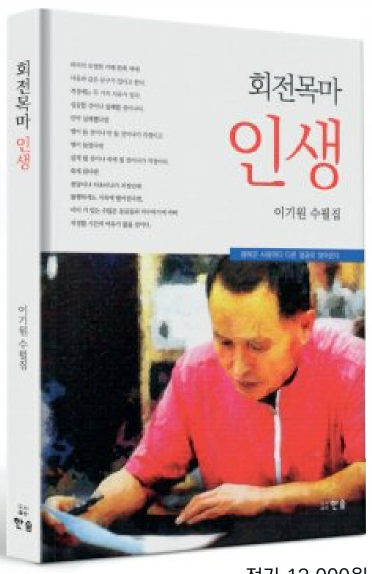
심리검사는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성격 테스트, 진로검사 이후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개인 상담은 대인관계·감정코치분야 전문가와 1대1 대면 상담으로 진행한다.

대면 상담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며, 비대면 유선·화상 상담은 평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집단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15명 이내로 운영한다. 모든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나주시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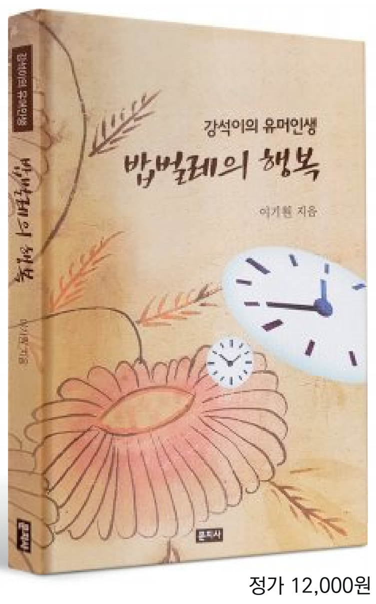


정가 13,000원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다.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냐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2,000원

'밥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난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름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 위안이 되고 싶은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홍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